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태백편
제 4차 길 위의 평화포럼

한민족 여성, 백두대간에 올라 통일을 외치다

• 주최 • (사)한국YWCA연합회
• 주관 • 광주YWCA, 서울YWCA, 한국YWCA연합회
• 후원 • 행정안전부

일정 | 2019년 7월 18일(목) 오후2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백편
길 위의 평화포럼

○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후2시

○ 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 사회: **김혜경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 순서

시간	내용
14:00~14:10 (10분)	**인사말 및 강사 소개**
14:10~15:10 (55분)	**강의「근대사 속 북한의 기독교」 박혜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원)**
15:10~15:40 (10분)	질의 응답
15:40~15:50 (10분)	휴식
15:50~16:30 (40분)	모듬별 토론
16:30~16:50 (20분)	전체 발표
16:50-17:00 (10분)	평화의 노래 / 마무리

근대사에 미친 북한 기독교의 영향

박혜진(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1.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다
2. 선교사 가족 대를 이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다
3. 여성, 이름을 갖다
4. 평양대부흥운동!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다
5. 105인사건과 3.1운동! 기독교가 항일운동에 앞장서다
6. 신사참배에 거부한 순교자들
7. 해방 후 북한교회사
나오는 말

올해 '길 위의 평화포럼' 주제가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 관계 이해'이다. 남북관계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주제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랫동안 적대시했던 두 체제의 지도자들이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눴고, 잠시 닫혔었지만, 이젠 더욱 발전적인 변화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도 자못 크다. 물론 여기에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올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북한지역에서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용 초기 기독교는 남한 지역에 비해 북한 지역에서 훨씬 활발하게 전파되었고, 그 영향은 매우 컸다. 우리는 오늘 한국 근대의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수용된 기독교, 특히 북한지역 기독교의 수용과 영향을 통해 현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다

중국의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 초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복음화에 힘쓴 분들이 있었다. 1870년대 초 만주에 있던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소속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馬勤泰) 선교사, 그리고 그와 협력한 의주 중심의 조선청년들이었다.

1879년 백홍준과 이응찬을 비롯한 4명의 한국인이 매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곳에서 로스를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1882년 3월에는 누가복음을, 5월에는 요

한복음을 각각 간행했고 그 다음해에 사도행전을 간행한 후 1887년에는 신약전서인 『예수셩교전셔』를 간행하게 되었다. 성경 번역은 로스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실제 번역은 한국인 개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압록강 북쪽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을 통해 압록강 남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특별히 만주의 28개 한국인 마을에서는 1885년 여름까지 100여 명의 수세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당시 세례희망자는 600명이나 되었다. 셋째로 이 성경은 서울에도 전해졌는데 그 주인공은 서상륜이다. 특히 서상륜은 1884년 소래에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정기 주일예배를 드린 한국 개신교 최초의 전도인이요 권서였다. 그는 1887.9부터 언더우드의 전도인으로 고용되어 서울과 북한 지역 전도를 담당했다. 그는 2년간 서울 중심으로 활동을 마치고 심양의 로스에게 돌아가 보고하게 되었다. 서상륜의 보고를 받고 로스는 대영성서공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했다. 그 편지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만도 70명의 개종자가 있었고, 소래지방에서는 약 19명의 사람들이 설교당을 중심으로 모였으며 서울의 남쪽에서도 20명이 모이고 있었다.
한국인이 번역하고 반포한 성경을 읽고 개종자가 생기는 이 모든 일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입국하기 전에 2만 권 이상의 한글성서가 한국인에게 전파되어 한국 개신교의 기초를 쌓고 있었다. 이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난 서간도, 서북지역, 서울은 이후 한국 개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만주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약간 늦기는 했으나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찍어 한국에 보급하려고 했다. 1885년 2월에 간행된 이수정의 『신약마가젼복음셔언히』는 재일한국인유학생들에게 배포되었고, 그해 4월 한국에 입국한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그 후에 내한하는 선교사들이 손에 들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피선교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갔다는 것은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2. 선교사 가족 대를 이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다

1885년 4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전도를 위해 이 땅에 들어왔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선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으나 선교의 허용은 별개의 문제였다.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된 후 선교사들은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1887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개신교 선교사들이 개성, 평양, 의주 등 북한지역을 다녀왔고, 1890년대 초부터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1893년 북감리교의 홀(William J. Hall, 1860-1894)과 북장로교의 마펫(Samuel A. Moffett) 등이 평양에 정착하였다.
캐나다 출신인 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였다. 거기서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를 만나 약혼을 하였다. 로제타 셔우드가 먼저 조선으로 떠나 1890년 정동 보구여관(保救女館) 의사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홀도 1891년 12월 조선에 들어와 서울에서 결혼하였다. 홀은

처음 서울의 시병원과 상동시약소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1892년 평양 개척 선교사가 되었다. 남산현교회가 설립되고, 광성학교와 정의여학교에 이어 병원도 설립되었다. 부인과 갓난아기까지 평양에 도착한 1894년 남쪽에서 동학군이 봉기하고,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갔다가 홀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였다.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시체와 가축들이 썩어갔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심하게 과로한 결과 홀은 말라리아에 걸려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발진티푸스가 겹쳐 부인의 치료를 받다가 1894년 11월 24일 조선에서의 생을 마감하였다.

이후 그의 헌신은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과 그의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에게로 이어졌다. 남편이 죽었을 때 로제타 셔우드 홀은 임신 7개월이었다. 미국에서 1895년 딸 에디스를 낳았고, 2년 뒤 조선에 다시 돌아와 친지, 동료, 독지가들의 협조를 얻어 평양에 기홀병원을 설립하였다. 이때 딸 에디스도 이질로 사망하였다. 1898년 부인진료소 광혜여원을 개설하면서 딸을 추모하는 뜻에서 '에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을 지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어린이 진료사업과 함께 조선 최초의 맹인학교를 시작하였다. 평양여학교에 맹인반이 만들어졌고, 이는 평양맹아학교로 발전되었다. 여성 의료사업은 당시 문화적 관습 때문에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불편해 하였던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의료의 혜택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료사적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신장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여자 선교사들이 전문직 의사로서 활동한 것은 조선 여성들에게 각성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의사와 간호사 양성이 시작되어 조선 여성이 의료관련 전문 직종을 통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아들인 셔우드 홀은 1926년 의료선교사로 부임하여 해주구세병원을 담당하게 되었고, 조선인의 생명을 수없이 앗아간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세병원에 결핵요양원을 설립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결핵에 관한 보건교육을 하면서 결핵치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크리스마스 실 발행 및 보급 사업이었다. 양화진외국인묘원에는 1대 윌리엄 홀과 그의 아내 로제타 홀, 2대 셔우드 홀과 아내 메리안 홀(Marian B. Hall), 셔우드 홀의 누이동생 에디스(Edith Hall), 3대 셔우드 홀 부부의 아들 프랭크(Frank)가 묻혀있다.

3. 여성, 이름을 갖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 없는 존재'였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름 있는' 존재가 되면서 비로소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초기 교회 여성들의 이름은 주로 선교사들이 지어준 것이다. 초기 전도부인 김세지, 김다비다, 이이사벨, 김서커스, 강도르, 주룰루 등이 있는데, 이들 초기 교회 여성들이 이름을 갖게 된 세례는 해방과 자유의 사건이었다.

김세지 부인은 1897년 여성 사경회에 참석하다 여자성경학원으로 발전하자 1908년

졸업하고, 전도부인이 되어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다니며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했다. 1902년 남편이 콜레라로 죽었으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도에 임했다. 1906년 1년 동안 2016회 가정심방(매일 5-6 가정 방문), 매달 2회 이상 장례가 난 집을 찾아 시체를 염하면서 전도하였다. '양반집 부인' 출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천한 일이었지만, 그를 자유케 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일념으로 기쁘게 감당하였다. 그녀는 교회 안에 여성 조직을 세웠는데, 1903년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보호여회'(保護女會)를 조직하고 전도와 선교, 교회 여성의 자기 능력 계발과 구제활동을 하였다. 회원들이 월 회비 10전을 거두어 전도와 구제비로 사용하고 전도부인을 파송하였다. 1916년에는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다. '과부회'를 만들어 구제활동도 하였다. 3.1운동 때는 평양지역 교회여성들이 조직한 애국부인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심한 고문과 악형을 받았고,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도 교회 설립과 전도를 계속하였다. 보쌈 결혼의 공포로 이리 저리 도망치던 김세지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전도부인으로, 보호여회와 과부회 회장으로, 애국부인회 임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모든 변화와 축복의 원인을 그리스도에게 돌렸다.

"나의 이름은 그의(노블 목사)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 받는 날로부터 여자 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개성 주룰루 전도부인의 어릴 때 이름은 주포기였다.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태어나 포기라고 지어버린 것이다. 1905년 외할머니와 어머니, 주룰루 3대가 해주읍교회에 나가 사경회에 열심 참석하였고 세례받을 때 '룰루'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사경회 인도자 밀러 선교사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몽둥이로 죽기 직전까지 맞아 쓰러졌고, 남편은 "만일 네가 내 눈에 보이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친정에 돌아와 교회 일에만 전념하며 사경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사범과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였고, 주룰루는 귀신 잘 내쫓는 전도부인으로 유명해졌다. 귀신의 노예로 무당이 되거나 신병을 앓는 여성들의 불행한 처지를 보면, 예배당으로 데려다가 기도로 귀신을 내어쫓았다. 황해도 연백, 옹진 등 각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교회 여성을 지도하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고픔의 설움과, 무당집 딸로 손가락질 받으며 불행한 시집살이 하다 미친 여자가 되어 버림받았던 주룰루. 그가 변화되어 학교 선생이 되고 전도부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것은 본인의 표현대로 "내 생활의 피난처"인 예수 때문이었다.

4. 평양대부흥운동!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다

청일전쟁의 혼란으로 개신교 교세가 증가하였는데, 1900년대 초 부흥운동을 거치며 특히 북한의 개신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1903년 원산에서 여선교사들이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였는데, 하디(R. A. Hardie)에게 인도를 부탁하였다. 하디는 이 집회

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 성령의 임재와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였다. 하디는 성경공부 모임에서 돌아온 주일 예배 때 원산교회 교인들 앞에서 과거 3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하며,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신앙적인 허물, 곧 한국인 앞에서 백인으로서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에 찼던 권위주의에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이 회개로 가득찬 고백은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선교사에게서 시작된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 한국인 교인들에게 확산되어 집단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 원산에서 시작되어 서울, 개성, 평양, 인천 등지로 확산되었다. 하디는 1904년 11월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떠났다.

부흥운동은 1907년 1월 평양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려 1500여명이 모였다. 매년 연례행사였던 사경회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던 길선주 장로(1907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는데,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길이었다. 평양 사경회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더욱 고양되었다. 선교사 블레어(W. N. Blair)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와 신자 사이, 특히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교인 사이에 그간의 갈등과 반목이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적으로 설교하자 다시 한 번 통회의 소리가 장내를 뒤덮었다. 마지막으로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였다. 6~7백 명이 기도하기 위해 남아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력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하였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죄의 자백과 회개는 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죄의 자백들이었다. 살인과 간음은 물론이고 방화, 술주정, 절도, 강도, 거짓말을 비롯해서 미움, 원한, 시기, 질투 같은 마음 속 부끄러운 죄들을 모두 토해냈다. 회개의 역사는 죄를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사회,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용서를 비는 실질적인 회개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남에게 신체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람들이 피해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부흥운동의 열기는 여성과 학생들에게도 전이되었다. 평양의 숭실대학을 비롯해 숭실학교, 숭덕학교, 광성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면서 사경회와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매주 주일에 그룹을 지어 평양시내와 인근에서 전도운동에 나섰다. 이 부흥운동이 전국에 알려지자 각처에서 평양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서울, 의주에까지 회개의 부흥회가 퍼져나갔다. 중국인 목사들도 평양을 방문하고 돌

아가 중국에서 부흥운동이 추진되어, 요양, 봉천, 몽골, 북경에까지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부흥운동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이 한국기독교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성령 임재에 대한 확신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장래 있을 심판 및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한국교회가 체험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인 신자와 선교사간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거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자신들과 구별되는 열등한 인간으로 보려 한, 백인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인 신자 앞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 운동을 계기로 선교사와 한국교인 모두 허물에 찬 죄인임을 자복함으로써 양측에 깔려있던 위화감이 정화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다. 셋째 한국교회와 교인의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내면 깊이 숨겨져 있던 죄의 고백은 신앙심을 더욱 정결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입교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교인이 적지 않았는데, 초기 교인의 사회 도덕적 취약점이 불식되었고 이후 한국교회의 경건성을 구현하는 기틀이 되었다. 넷째 성경공부와 기도의 열심이 더욱 고양되었다. 평양에서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사경회가 열리면 멀리 떨어진 삭주·창성·의주 등지에서까지 몇 주일간 먹을 쌀을 짊어지고 참석할 만큼 열심. 심지어 서울, 목포, 무안에서도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합심하여 기도했으며, 새벽부터 밤이 되도록 진행되는 일이 허다하였다.
대부흥운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게 되자, 일반사회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해소시켰다.→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것이 1919년 3.1운동 때 기독교 목사,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5. 105인 사건과 3.1운동, 기독교가 항일운동에 앞장서다

1880-90년대 기독교 선교가 시작될 때 우리 민족은 근대화와 자주독립이라는 두 가지 정치·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봉건적 사회체제가 붕괴되고 근대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근대화가 필요했고,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자주독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유와 평등’ 관점에서 봉건적 신분철폐와 남녀평등을 실천하였고, ‘자유와 해방’ 관점에서 외세, 특히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탈했고, 이듬해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보호국화’하여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1910년 8월 한국을 완전히 병탄(倂呑)하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하고, 헌병이 전국의 경찰업무를 장악하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식민지배에 착수하였다.

일제는 항일 민족운동 세력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선천, 정주, 곽산, 평양, 개성 중심의 기독교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나자, 기독교 조직을 근거로 한 민족운동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고자 하였다. 이것이 '105인사건'이다. 1910년 11월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황해도 안악지방에서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는데, 일제는 이 사건을 날조, 확대해 고문과 협박으로 '데라우치총독 암살 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통해 서북지방의 민족운동가들을 일소하고자 했다. 1911년 11월 서울, 평양, 선천 등 다수의 기독교인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마구 체포하기 시작하여, 구속된 사람은 대략 700명 가량이었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아무런 물증도 없이 허위 진술만을 자료로 123명을 기소하여 1심에서 105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조작이 드러나, 2심에서 105명중 99명 무죄선고, 윤치호, 안태국, 양기탁, 이승훈, 임치정 징역 6년, 옥관빈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실형받은 6명도 1915년 2월 일왕특사 형식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105인 사건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십자가와 순교의 신앙을 체험하였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는 가혹했다. '105인사건'으로 신민회를 비롯한 국내 민족운동 조직은 와해되었고 항일 민족운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 때 옥고를 치른 많은 이들이 석방 후 목회와 사회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 때 다시 전면에 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105인사건'은 한국교회 여성지도자들로 하여금 항일 민족운동 단체를 조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들이 '송죽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투옥중인 독립운동가 가족구호와 민족의식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당시 전국에 4,324교회에 한국인 목회자 602명, 교인 212,703명 정도로 추정된다. 장감 이외 성공회,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 등을 다 합해도 25만명을 넘지 못했고, 이는 당시 한국 인구 1600만 명의 1.5%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기독교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고,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통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 2명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6인 기독교 대표의 절대 다수(13명)는 목사 및 전도사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부흥운동에 이르는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운동 기간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신학 훈련을 받았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의미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로 시작해서 중생(거듭남)과 성화(성결)로 이어지는 기독교 구원의 본질을 체험하였다는 점이었다.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와 희생을 목격한 일반 시민사회는 기독교를 '나라를 위한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3·1운동 때 기독교는 '교회 경계를 넘어' 일반사회까지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지닌 목사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등으로 설명했다. 종교적 신념과 결단에 근거하여 기독

교 대표들은 종파와 교파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종교간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6. 신사참배에 거부한 순교자들

1938년 2월 일제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에 따라 교회에 대해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면서, 경찰을 동원해 교회, 노회, 총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제 결의시켰다. 한국 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순응하게 된다. 안식교와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는 일찍부터 신사참배에 굴복하였고, 천주교는 1936년 5월 로마교황청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하였다. 감리교는 1936년 6월 총리사가 일제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하였고, 장로교도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이후 한국교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순응하게 되고 훼절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시기에 북한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이는 대략 2천여 명이며, 2백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50여명이 순교하였다.

이름	**신사참배 거부항쟁**
박관준 장로	평양에서 십자의원 운영하던 의사. 1935말부터 수차례 총독에게 청원서와 경고문 보내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 경고하다 경찰서에서 구류, 취조. 1939.2 일본 제국의회와 정계에 청원하기 위해 안이숙(선천 보성여학교 음악교사 사퇴)을 통역으로, 일본에 건너가 아들 박영창(일본신학교)과 함께 일본기독교회 장로 히비키 중장, 경우회 대의사, 전 조선총독 우가키 등을 방문. 6.23-24 제74회 제국의회 중의원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종교법안 제정 반대, 국교를 신도에서 기독교로 할 것, 신사참배 강요 등 악법 실시 강요와 양심적 교역자 투옥 철폐할 것 등의 건의서, 경고서 4통을 단상을 향해 투척. 체포, 고향으로 회송. 아들은 중국 망명, 박관준과 안이숙은 신사참배 거부운동 계속하다 투옥, 6년간 옥고로 병을 얻어 1945.3.13. 순교.
김선두 목사	1938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되었다가 4개월만에 병보석으로 출감. 1938.8.24. 일본에 가 정계, 군부 방문해 진정. 다시 한국에 와 장로회총회 결의 막으려 했다가 구속
'예수교도의 신사불참배 교회 재건운동사건'	가장 큰 규모의 거부항쟁-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며 "궁극적으로 일본 국체를 변혁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목적"했고 '신사불참배 재건총회 조직준비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940.9.20. 새벽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거부항쟁자 193명 검거. 3년간 예심 심리. 1941.5 이기선 목사 등 68명 송치, 1942.5 그 가운데 35명을 기소, 8명 기소유예, 25명 불기소 처분. 예심심리가 3년간이나 진행되어 그동안 최봉석 목사(평양, 1944년 75세), 주기철 목사(평양, 1944년 47세), 최상림 목사(거제, 1945.5월 57세), 박관준 장로(평북영변, 1945.3월 70세) 등 4명 순교. 이기선 목사 등 21명(이기선, 김린희, 김형락, 박신근, 김화준, 고흥봉, 서정환, 장두희, 양대록, 한상동, 주남선, 조수옥, 이현속, 최덕지, 손명복, 이인재, 채정민, 안이숙, 이광록, 방계성, 오윤선)에 대해 1945.5.18. 예심종결. 건강악화로 석방된 이현속은 5일만에 사망.
이기선 목사	1938.7 교회 사면하고 각지 순회하며 신사참배 거부 권유하다 여러차례 검속.

(평북 의주 북하단동교회)	1940.3 만주 안동을 방문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자들과 회합. 1)신사참배를 죽어도 반대할 것 2)신사참배하는 학교에 자제들을 입학시키지 말 것 3)세속화되어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절대 출입하지 말 것 4)신사불참배 동지들끼리 가정예배 드릴 것 5)신앙동지들 확보해 신령한 교회 육성할 것.
주기철 목사 (1897-1944, 평양 산정현교회)	1936 길선주 후임으로 부임. 1938.3.25.-6.29 1차 투옥(1938.2 장로교 평북노회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현존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죄목) / 1938.8-1939.1 2차 투옥(1938.9 장로회총회 신사참배 가결에 대항, “일사각오(一死覺悟)” 설교, “조선민족의 애국심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악정을 규탄하자”고 신사참배 거부를 교도들에게 호소, 농우회사건 연루혐의자로 체포되어 경북 의성으로 압송, 가혹한 고문 당하고 장기 구속) / 가석방. 다시 교도들에게 신사참배 거부 설교해 1939.10-1940.4 3차 투옥 / 1940.7 ‘불경죄 및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1940.9 4차 투옥.(평양노회-주기철의 목사직 파면, 1940.3 산정현교회 폐쇄) / 1944.4.21. 47세로 옥중 순교. 1963 건국공로훈장 추서

초기엔 교회와 개인의 인적, 지역적 연대로 활동했으나 점차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 일어났다. 주기철 목사는 해방 후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등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신앙적 순결과 교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라는 절대권력과 대결했던 인물이다.

신사참배 거부항쟁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천황제 이데올로기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킴
② 세속권력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공교회의 변질을 엄중히 경고하고 개혁하려 함
③ 민족정신 말살하려는 일제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항거
④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반대하고 저항

7. 해방 후 북한교회사

북한지역의 기독교는 한강 이남에 비해 훨씬 교세가 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평양, 선천을 비롯해 평안남북도, 황해도는 어느 지역보다 기독교가 성한 곳이었다. 1938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60만을 넘는 기독교 신도 중 약 75%가 북한에 있었다. 주로 미북장로회가 선교구역이었고, 함경남북도는 캐나다선교회, 황해도 일부와 평북 영변지방은 감리교 지역이었다. 당시 신의주, 의주, 선천, 정주, 영변, 평양, 강서, 진남포, 선천, 재령 등 도시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충돌이 그만큼 치열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초기에는 기독교를 포섭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탄압과 소멸을 꾀하게 되었다.

1) 종교 재산의 제한 및 몰수-1946.2.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되면서 최초로 다룬 문제는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에서 모든 지주의 토지가 몰수대상이 되었던 것

은 아니다. 항일민족운동가, 민족문화 공로자의 토지는 제외되었다. 반면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5정보 이하라도 몰수되었다. 북한 기독교인의 많은 수가 중소지주 이상이었으므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은 중산층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었다.

2) 신교의 자유 제한 및 방해-1945.10.12. 소련군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허락한다"는 1조를 명기했다. 1946.3.23. '김일성장군 20개조 정강'에도 "모든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한다"라 규정하고, 동시에 "파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개인의 활동을 절대로 금지한다"고 하여 '신앙의 자유'는 '반동분자의 활동'이라는 명목에서 금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1972.12 '북조선 신헌법' 54조에도 '신교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병기되고 있다. 1950.6.25.까지 예배는 가능했다. 기독교의 집회가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교회가 신도들 혹은 당국이 폐쇄한 것은 6.25전란이 시작되고부터였다.

신의주학생사건(1945.11), 장대현교회의 장·감 연합 3.1절 기념행사 탄압사건(1946.3.1.), 함흥학생사건(1946.3.13.), 1946년 일요 선거문제(1946.11.3.) 등 6.25전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산정권과 기독교의 충돌은 계속되었다.

평양에서 조만식, 오윤선 장로를 중심으로 결성된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북한 전역에서 호응을 얻어 1945년 8월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흡수되었다(위원장 조만식, 부위원장 현준혁). 그러나 요직은 모두 공산계열이었고, 김일성은 조만식에게 권고해 정당을 만들 것을 설득하고 그가 신정부에 협력하길 기대했다. 조만식, 이윤영, 최용건, 김책 등이 조선민주당(1945.11.3.)을 결성하여 3개월 만에 50만 회원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적극 참여하였다. 공산정권은 이를 위험시하여 탄압하였다. 12월 모스크바3상회의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조만식은 절대 반대하였고 고려호텔에 감금되었다. 이후 1946년 2월 최용건이 당수가 되어 성격이 변질되었다.

1945년 9월 기독교사회민주당이 윤하영, 한경직 등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소련군 진주와 동시에 탄압받고, 10월 한경직 목사 월남, 신의주학생사건과 관련해 당 간부들이 검거되면서 해체되고 조선민주당에 흡수되었다.

1947년 11월 평양 김화식, 김관주, 신석구 목사 등이 기독교자유당을 결성하려고 했으나 내무부에서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이는 미수로 끝났다.

1946년 11월 3일 선거에 대해 일부 목회자들이 김일성 정부를 지지하며, 교회는 선거에 앞장서 참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선거가 끝난 후 11.28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평양신학교 출신이며 김일성의 외척인 강양욱 목사가 중심이 되었고, 1947년까지 설득과 강제에 의해 이북의 교직자들을 가입시켰다. 1949년에는 교직자 뿐 아니라 일반 신도까지 강제로 각지의 면, 군, 도에 조직을 만들고 가입시켰다. 가입하지 않은 교직자는 노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해방 이후 북한의 종교탄압 정책으로 종교인들이 다수 월남하였다.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체포되기도 하고, 전쟁 중에 북한에 진주한 UN군, 한국군

환영행사에 나갔다가 1.4후퇴 때 대거 월남하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북쪽의 주요 시설과 함께 교회당도 모두 파괴되었다. 교회가 연합군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반미선전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을 도피시킨다고 하여 교회와 성당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미군의 공습에 모두 희생되게 하기도 했다. 이로써 '미제의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하고 '반미구국투쟁'을 선동해 적개심을 부추겨 종교말살의 이중효과를 꾀했다. 또한 1950년 6~10월 사이 북에 남아있던 교직자, 신자들이 집단 처형당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북에 남은 기독교인들은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철저히 종교말살을 꾀했다.
1974년 이후 조선기독교도연맹(조기련)이 중단했던 외부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 종교활동에 대한 제제가 크게 완화되자 1972년 평양신학원을 개원하였고, 1987년까지 20여명의 교역자를 배출했다. 1970년대 북한에 100개의 가정예배 처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81년에는 약 500개의 가정예배처소에서 5천 명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 고향 찾아 방북한 해외 한인 기독교인들이 각지의 가정예배에 참석하면서 가정예배의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 1985년 북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개신교인 1만 명과 천주교인 800명이 있다고 말한다. 1980년대 성서와 찬송가를 발행하였고, 조기련이 해외 한인 기독교인들과 직접 만나기 시작한 것도 80년대이다. 그리고 마침내 스위스 글리온에서 1986년 9월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남북한 교회 대표가 만났다.
북한에 교회가 설립된 것도 이 즈음이다. 1980년대 말 북한은 해외 방문자들에게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해 주고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988년 1월에는 봉수교회를 11월에는 장충성당의 문을 열었고 이어 김일성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칠곡교회를 재건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봉수교회(평양시 만경대구역 건국동 보통강변, 조선기독교도연맹 소속)가 설립되었다. 약 2천여 평의 부지는 북한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건축비는 북한 교인들의 헌금과 해외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북한 목회자들과 해외교포 및 저명한 외국인 전도자들의 설교가 행해지고 있어서 북한 기독교의 실제적인 선교기관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한 및 해외의 도움으로 사회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 봉수국수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봉수교회의 설립은 북한교회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자 분단 이후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미약하게나마 신앙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교회사적 의의를 지닌다.
칠골교회(칠곡교회七谷敎會)는 1992년 말 평안남도 대동군에 건립된 개신교 교회로, 북한 당국의 토지 증여와 무이자 대부라는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칠곡교회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돈욱이 시무 장로로 재직한 교회이고, 어머니 강반석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다녔던 곳이며, 김일성 자신도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부주석을 지낸 강양욱 목사 역시 어린 시절을 보낸 교회이기도 하다.

교회 건립을 위해 1989년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가 1만 달러를 헌금했고, 1994년 1월 복음주의 계통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칠곡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는 김일성과 면담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다시 김일성의 친서를 클린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칠곡교회의 설립목적은 북한 지역에도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외적인 선전용이었지만, 한편 남한 및 서구 사회와 교류하며, 외부로부터 자금과 구호물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다.
조그련(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남한교회도 1990년대 들어 직접 교류하기 시작했다. 서신 교환과 해외 만남에 이어 남한교회 대표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조기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조그련이 북한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지하교회'도 존재한다. 현재 국경근처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도자들이 북한 주민을 개종시킨 후 북한으로 들여보내 만들어진 비밀 신앙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2008년부터 9년간 남한에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민간교류는 중단되었지만, 다시 2017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 남북한 관계에 급진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남북 기독교인들의 상호 교류 및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나오는 말

근대사에 미친 북한 기독교의 영향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글자를 읽고 쓰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사실이 폄하될 수 없다. 홀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은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바쳤으며 이 땅에 묻혔다. 그들은 근대 문화를 전파하였으며 여성들에게는 이름을 주어 자유와 해방을 자각하게 했다.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 의식을 심어주어 봉건적 신분철폐와 남녀평등을 실천하였고, '자유와 해방' 의식을 통해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부흥운동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게 되고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그것이 무단통치기 전국적인 3.1운동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은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게 되고, 일제말기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공교회의 변질을 경고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남북 분단과 6.25전란은 이후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설립되어 해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기독 여성들은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인식하였다. 1922년 한국YWCA가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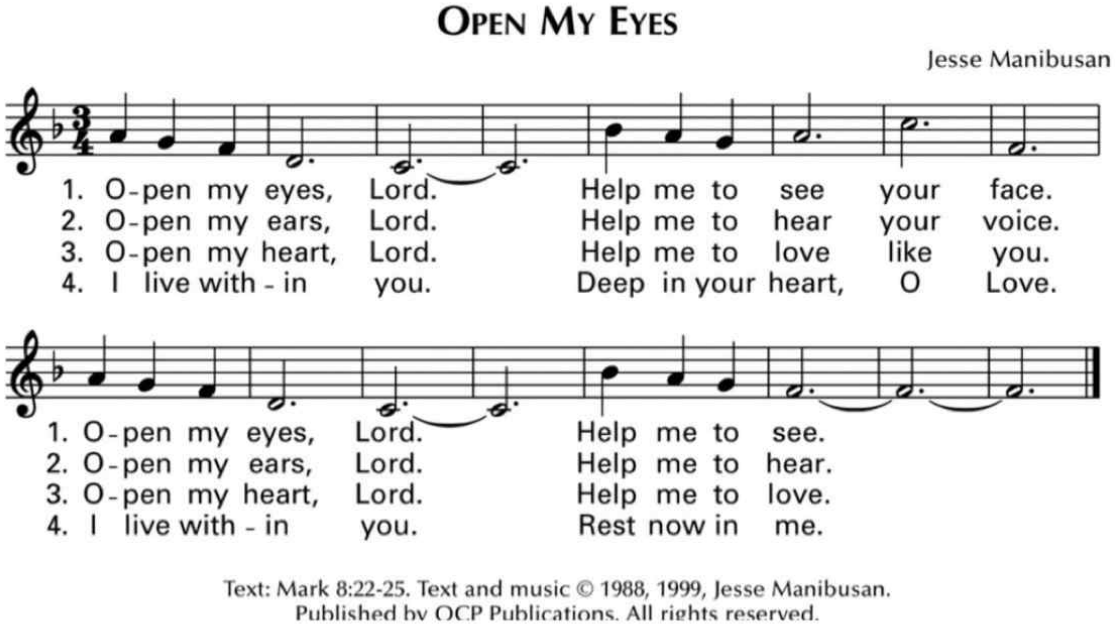
된 이후 북한의 8개 지역(선천, 평양, 진남포, 해주, 재령, 개성, 원산, 함흥)에 YWCA가 존재했다. 한국YWCA는 1980년대 이후 북한YWCA 재건을 결의하고 기도와 지원 운동을 진행해왔다. 한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 관계가 최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 때 YWCA 재건과 향후 북한 기독여성들과의 교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Ⅰ(개정판) (기독교문사, 201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개정판) (기독교문사, 201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Ⅲ(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류대영, 『한 권으로 읽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김승태,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김흥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다산글방, 1992)
북한교회사 편찬위원회, 『북한교회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M. W. Noble, 『승리의 생활』(조선기독교창문사, 1927)

〈 토론지 〉
1. 평화 통일 운동 전개에 있어서 남한 기독교 및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긍정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2. 북한YWCA재건과 향후 북한 기독 여성들과의 교류를 위해 장/단기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기타

〈평화의 노래〉



Text: Mark 8:22-25. Text and music © 1988, 1999, Jesse Manibusan.
Published by OCP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1. 내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나의 주님
2. 내 귀를 여소서 주 듣게 하소서 내 귀를 여소서 나의 주님
3. 내 맘을 여소서 그 사랑 하도록 내 맘을 여소서 나의 주님
4. 주 안에 거하네 그 마음 깊은 곳 주 안에 거하네 나의 주님

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백편
길 위의 평화포럼

1. **주제**: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 관계 이해
2. **일정**: 2019년 4월 ~ 9월 3째 목요일 오후2시 (총5회: 4, 5, 6, 7, 9월)
3. **목표**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과 주변국 등에 대한 실제적 이해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 형성
   - 회원YWCA 평화 운동가 양성

4. **포럼단의 역할**
   - 각 지역 회원들의 지속적 만남과 교류
   - 강의 및 개인의 삶과 연관된 대화, 조별 토론을 통한 평화인식 확대
   - 총 5회 중 4회 이상 참석 시 평화순례단으로서 '길 위의 평화 대포럼'(태백산 등반)에 참가

   * 올해는 창립97주년으로, 포럼단을 포함한 97명이 평화순례단으로 구성됨

5. **일정**

	일시	내용	강사
1	4월18일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사회: 장미란 위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5월16일	북한의 정치 및 권력 관계 (사회: 하은경 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3	6월20일	북한 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 (사회: 박영순 위원)	김은주 (실행위원,)
4	7월18일	근대사 속 북한의 기독교 (사회: 김혜경 위원)	박혜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원)
5	9월19일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시민사회 과제 (사회: 엄에스더 위원)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센터)

*** 길 위의 평화 대포럼 (등정)**
- 일정: 9월30일(월) - 10월 2일(수), 태백산
- 주관: 서울YWCA

[2019 YWCA 평화포럼단]

	지역	구분	이름	비고
1	경기	고양YWCA	윤정애	
2		고양YWCA	김용주	
3		수원YWCA	김경이	
4		안산YWCA	황혜정	
5		안산YWCA	민혜진	
6		안양YWCA	김희정	
7		안양YWCA	김지나	
8		의정부YWCA	김선희	
9		의정부YWCA	이정희	
10	동부	대구YWCA	김정은	
11		마산YWCA	김명자	
12		진해YWCA	윤미자	
13		진주YWCA	정경옥	
14	북부	서울YWCA	양진화	
15		서울YWCA	김재신	
16		원주YWCA	조숙자	
17		인천YWCA	조철숙	
18		인천YWCA	유승분	
19	서부	광주YWCA	김신희	
20		순천YWCA	손모아	
21		목포YWCA	문영심	
22		전주YWCA	최명희	
23	중부	대전YWCA	조정현	
24		세종YWCA	허미정	
25		천안YWCA	박미숙	
26		청주YWCA	김경민	
27		탈북민	김길선	
28			차정희	
29			손춘옥	
30			정진화	
31			원예빈	
32			마순희	
33			조혜리	
34			황재경	
35			엄에스더	
36		한국YWCA연합회	장미란	
37			최수산나	
38			최지영	
39			문윤희	